



10월의 기도

1. 주님, 저희는 조용기 목사님의 추모 3주년을 맞이하여 그분의 헌신과 사역을 기억합니다. 목사님께서 생애동안 보여주신 믿음과 열정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남기신 믿음의 유산을 따라 저희도 선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 사역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각자도 목사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 사랑하는 하나님,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종 질병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사역하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이들도 주님의 평안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 무더위가 지나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 계절에, 저희에게도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을의 풍요로움처럼, 저희의 전도 활동도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4. 가을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 속에서 저희 모두의 가정에도 평안과 풍요로움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저희들의 가정이 사랑과 화목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모든 필요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태승, 김주영, 박순철, 서유람, 정경자, 최기태, 최인철, 함석숙, 황기남 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별칭 및 익명으로 후원해 주신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예금주 : 디시이엠
계좌번호 181-22-02127-7 혹은
256-890020-00804 (하나은행)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8)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나은 내일과 더욱 큰 행복을 얻으며 좀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인가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악, 부정, 불안, 파괴와 절망을 심어 놓고 그 곳에서 행복과 즐거움과 부유와 풍요가 거두지리라 생각한다면 이는 우주의 법칙을 무시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창 1:11-12)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발이고 생각은 씨앗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밭에 두 종류의 씨가 뿌려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뿌린 천국의 아들이 되는 씨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탄이 뿌린 가라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밭에 천국의 아들의 씨가 뿌려지면 우리는 천국의 자녀들이 되고, 가라지 씨앗이 심겨지면 가라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밭에 어떠한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 어떠한 것을 추수하느냐가 결정되므로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패배를 승리로, 죽음을 생명으로, 질병을 건강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여러분의 삶과 미래를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되려면 여러분이 회개함으로써 마음의 밭에 심어진 가라지를 다 뽑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파괴와 절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은 말씀의 씨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故 조용기 목사님의 선교 사역의 발자취와 새로운 선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October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DCEM 2024년 해외성회

<대만 타이베이 조용기 목사 3주기 추모예배>



전 세계를 순복음의 영성과 희망의 메시지로 물들인 영산 조용기 목사의 3주기 추모예배를 12일(현지시간) 대만 뉴타이베이시에 위치한 신띠엔싱타오교회에서 개최했다. DCEM과 대만 조용기목사제자협회가 주관하고 에스라사역연구소와 신띠엔싱타오교회가 주최한 이날 예배에는 대만 전역에서 모인 목회자와 교회 리더, 성도 1500여 명과 순복음동경교회 성도들이 참석했다.

추모사를 전한 이영훈 목사는 “우리 모두의 영적 스승 되시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조용기 목사님은 평생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령 충만과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사셨다.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길



을 몸소 보여주셨다. 이번 3주기를 보내며 우리의 삶과 사역을 다시금 돌아본다. 목사님께서 보여주셨던 세계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교회 부흥을 위한 헌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우리 모두가 일평생 본받고 닮아가자”고 말했다.

DCEM 사무총장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순복음동경교회 담임)는 “천국가신 목사님의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는 대만 교회가 되어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조용기 목사님 3주기 추모예배와 함께 대만 땅에 임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 순복음동경교회 성도들도 함께 참석했다. 이번 선교 일정을 통해 새로운 영적 도전을 얻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설교자로 나선 장마오송 목사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며 “디모데의 스승이 바울이었던 것처럼 내 영적 멘토이자 스승은 조용기 목사님이다. 조 목사님께 배운 기도와 믿음은 저에게 귀한 영적 유산으

로 남아 있다”며 “목사님을 통해 주신 중화권 복음화라는 거룩한 꿈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대만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성도들은 조용기 목사님에 대한 회고 영상과 대만 목회자들의 인터뷰를 시청하며 조용기 목사님을 그리워했고, 조 목사님의 신앙을 계승 발전해 다음세대가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다시금 새롭게 불타오르게 되길 소망했다.

유가족을 대표해 참석한 국민일보 조민제 회장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 성화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도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복이 임하길 바란다”고 감사를 전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대만 땅에 심은 복음의 씨앗은 2%에 불과했던 대만 기독교를 10%가 넘는 거대한 나무로 성장시켰다. 대만과 아시아에 지피워진 부흥의 불길에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풍성한 복음의 열매가 맺히시길 기도한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목자이신 하나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요한복음 10장 10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편지 한통을 받았는데 아주 비싼 음악회 티켓 2장과 예쁜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고 "누가 보냈나 알아보세요."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감사한 마음으로 음악회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세상에 그 사이 도둑이 들어서 귀중품을 몽땅 훔쳐간 것입니다. 그래서 문에 그런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지요?"

집에 도둑이 들면 귀중한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것처럼 마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귀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면 죄와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고 각종 질병과 고통을 당하며 가난과 저주가 가득한 삶을 살고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3.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서는 그러나 우리에게 와서 생명을 주시되 양으로 얻게 생명을 풍성히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양에 비유하셨는데 양은 목자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요즘 집에서 키우던 옛날 애완동물을 길에 버리는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들은 주인에게 버림을 받으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길에서 떠돌다가 결국 병에 걸려 죽고 맙니다. 양도 목자가 없으면 죽고 맙니다. 양은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사나운 이리에게 물려 죽거나 시력이 나빠서 이리 저리 헤매다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죽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목자 없는 양과 같습니다.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고 행복과 기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요한복음 10장 11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요한복음 10장 9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가 양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듯, 우리 영혼이 잘될 뿐만 아니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까지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세계 일주가 꿈이었는데 평생 모은 돈으로 호화 여객선을 타고 세계 일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표를 사고 나니까 남은 돈이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은 뷔페를 즐길 때, 빵이나 라면으로 식사를 때우고 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배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 선장이 와서 인사를 합니다. "할머니, 행복한 여행이 되셨습니까?" "네. 그런데 돈이 부족해서 라면과 빵만 먹고 힘들었습니다." 그러자 선장이 깜짝 놀라고 "아니, 할머니. 할머니가 지불한 돈에는 식사값도 다 있다는 걸 몰랐군요."

크리스천 중에도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풍성한 꼴을 먹여 주신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동으로 일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먹이고 돌보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시편 23편 1절~2절)'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나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팍 들어차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꿈을 갖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갈 때,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창조적인 믿음의 고백을 통해 날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손을 잡고 마귀의 세계를 멸하고 예수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나갈 것입니다. 이 병에 원수마귀는 우리 인생들이 병에 걸려 기절을 하기를 바라고 우리 인생들이 마음에 걸려서 자기 심정에 고난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오늘 마귀를 쫓아내십시오. 할렐루야.

1. 부족한 인생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삶에 무언가 부족하다."고 말하는데 시간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애써 채워도 늘 부족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원하는 것은 다르지만 부족한 것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 지으신 세계는 부족한 것이 없는 세계였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또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또 풀과 채소와 나무를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좋았으니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마귀

그리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마귀는 우리의 주변에 늘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를 꾀어 죄를 짓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섬길 때는 온 세계가 질서가 있고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자 이 세상이 탐욕으로 팍 들어차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고 미움과 싸움이 끝이 없는 무질서의 세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마태복음6

사람을 끌어당기는 성령의 역사와 회개



이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마 3:5)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선포하는 회개의 메시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은 감동을 일으켰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부르짖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끌어당기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도 성령께서 끌어당겨주셔야 성장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를 끌어당기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것도, 설교에 은혜를 받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끄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유대 광야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은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모두다 예수님을 쳐다보고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너무나 달기 때문



에 입을 찢벌리고 눈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죄를 회개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지은 죄악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다. 캄캄할 때에는 더러운 것을 모르고 그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커튼을 쳐서 밝은 빛이 들어오면 더러운 것들이 보이므로 소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가 소제입니다. 옛날에는 죄가 죄인줄 모르고 살았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비취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지않은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애통하고 회개하여 죄를 씻어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 3:8)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습니다. 회개했으

면 생각도 달라지고 감정도 달라지고 행동도 변화받으라는 말입니다. 형식적인 의식이나 위선적인 종교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죄악된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버리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마 3:9)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고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 언약의 상징인 할례만 받으면 세속적으로 살면서 죄 짓고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은 잘못된 유대인들의 자부심을 지적하며 구원은 혈통으로 받는 것이 아님을 선언했습니다. 종교 의식이나 혈통은 구원받는 조건이 못 됩니다.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일대일로 만나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를 받는 역사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산강회는 조용기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세계」에서 요약 발췌하였습니다.